



금융기관 자기자본제도(5): 신용리스크

김동겸 선임연구원

■ 신용리스크(credit risk)란 차입자¹⁾가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 또는 신용 변화로 인한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의미함.

- 신용리스크는 협의의 개념으로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할 때 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나타냄.

■ 신용리스크는 예상손실(expected loss)과 예상외손실(unexpected loss)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예상손실은 금융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영업비로 인식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출가격에 반영하며, 예상외손실은 최종적인 위험완충수단인 자본으로 관리함.

- 예상손실은 과거와 현재의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익스포저(exposure) 중 일부분이 미래의 일정기간 내 손실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함.
 - 예상손실은 도산확률과 손실액을 통해 산출 되는데, 손실액은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유실되는 포트폴리오의 가치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하여 산출함.
- 예상외손실은 예상치 못한 경기악화 등 거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될 손실로, 일반적으로 신용조사기관이 개발한 CreditMetrics, CreditRisk+ 등 통계적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함.

1) 차입자 또는 차주(obligor)란 부도를 포함한 신용도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거래상대방을 의미하며, 정부, 중앙은행, 거래소 등 부도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무위험차주와 유가증권, 예금, 투자자산, 대출 등 부도위험이 있는 거래상대방인 위험차주로 구분이 가능함.

■ 신용리스크는 측정방법, 손실분포 측면에서 시장리스크²⁾와 다른 특성을 보유함.

- 시장리스크의 경우 시장 내에서 동일 자산에 대한 가격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나, 신용위험의 경우 동일 기업의 과거 부도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손실 분포는 시장리스크의 수익률 분포와 다르게 비대칭적이고 두터운 꼬리를 갖기 때문에 시장리스크보다 예상외손실의 측정이 어려움.
 - 도산은 발생빈도가 낮으나 도산 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손실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주어진 평균과 표준편차만으로 예상외손실을 측정할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모형³⁾에서는 차주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이나 신용위험액을 산출함.

-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액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가중치를 대차대조표 자산, 부외항목 또는 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저에 곱한 금액으로 정의됨.
 -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과 잔존만기별에 따라 0~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하에서 신용위험액은 대차대조표자산, 장외파생금융거래로 구분하고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⁴⁾하며, 위험계수는 자산의 종류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로 차별화함.
 - 신용위험액 산출기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BIS협약의 자기자본산출기준 표준방법의 자산분류 및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설정함.⁵⁾

2) 시장리스크(market risk)는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요인의 변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함.

3) 표준모형이란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 방법을 의미함.

4) 보험회사의 신용위험 측정대상 자산으로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가치 또는 손익이 변화하는 예금,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대출채권, 부동산, 비운용자산 등이 있음.

5) 금융감독원(2011),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